

# 서구, 달라진 친절서비스에 주민 만족도 급상승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의 민원 창구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친절도가 향상되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서구는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서구청 민원실 및 365민원실 전반에 대한 친절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범적으로 거점동 4곳과 구청 민원실에 대한 친절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올해 컨설팅 대

상을 20개소로 확대했다.

그 결과 6개월만에 친절도가 크게 향상됐다. 지난해 시범대상 5개소의 친절도 점수가 평균 67.5점에 그쳤던 반면, 올해 상반기 친절 컨설팅을 실시한 20개소의 친절도 점수가 평균 83.26점으로 크게 올랐다. 특히 치평동, 상무2동, 서창동 등 7개 동은 친절도 점수가 최상위권인 90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는 전문 모니터 요원이 정기

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환경 및 근무자세, 맞이인사, 경청·응대태도 및 상담능력, 배웅인사 등 친절도의 기준 항목 전반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컨설팅 전문기관에 따르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친절도 점수(평균 70점대)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친절서비스의 대명사인 은행 수준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도 이같은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구청장과 직접 소통

하는 '바로문자하랑께(010-3080-8249)'에는 "동 직원들의 친절에 동사무소 업무가 즐거웠다", "전자제품 AS를 요청하러 방문했던 서비스센터보다 친절했던 공무원 응대를 받았던 하루다", "법무사에 제공할 상속서류가 많고 복잡하네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인사만 열 번쯤 하고 왔다" 등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칭찬하는 주민들의 문자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이가영 기자

## 북구,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참여 2030 청년 소상공인 모집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자본력이 미약하고 홍보 자원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판로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에 따르면 '2030세대 청년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온라인 채널로 상품 홍보, 매출 증대 등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대협업체를 통해 진행하기엔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북구는 민생경제 회복기금 7천600만 원을 투입,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인 소담스퀘어를 통해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제품 홍보 컨설팅, 쇼호스트 섭외, 방송 제작·송출 등 라이브커머스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 성과가 우수한 업체는 1개월간 마을버스 외부 광고판 홍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둔 만 20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소상공인으로 온라인 상품 판매가 가능한 업체다.

북구는 1차로 오는 26일까지 15개 업체를, 2차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개 업체를 모집하며 자격요건, 상품 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해 1차 선정업체는 오는 30일, 2차 선정업체는 8월 30일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소상공인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이메일(ocean001@korea.kr)로 접수하거나 북구청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 또는 소상공인지원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섭 기자

## 광산구, 촘촘한 복지망 구축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주민 소통과 문화·여가 등 공동체 활동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까지, 시민의 행복한 삶을 밀착 지원할 마을복지관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를 내걸고, 지난해부터 각 마을의 경로당, 주민 공간 등을 중심으로 98곳(2023년 5월23일 기준)의 마을복지관을 선정했다.

100여 개의 마을복지관에선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지역주민의 상생,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진행한다.

광산구 부서와 4개 복지관(더불어아라노인복지관·행복나루노인복지관·첨단종합사회복지관·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 등 20여 개 기관 및 부서가 협업해 건강, 문화, 취미·여가 등 20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복지 취약계층을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와 도움을 연결하고, 재능나눔, 자원봉사, 마을공동체 등 주민의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광산구는 마을복지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산시민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행복복지파트너'를 양성, 배치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복지관 운영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기만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자 안전교육을 비롯해 공사 규모가 큰 사업장을 연달아 점검하면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남구청 제공

## 남구,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경종' 관리 강화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자 안전교육을 비롯해 공사 규모가 큰 사업장을 연달아 점검하면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남구에 따르면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 역량 강화 교육'이 열렸다.

이날 교육에 관내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와 구청 담당 공무원, 국토안

전관리원 호남지사 등 100명 가량이 참석했으며, 교육은 약 90분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추락사고 예방 등 건설 현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유형을 살피면서 안전수칙 준수를 다짐했다.

남구는 또 지난 13일부터 구청 건

축과 주택과, 안전총괄과,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와 함께 안전 점검단을 구성,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한 반다비 체육관 건설현장 1곳과 민간 건축공사장 18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희태 기자

## 동구, 빈집 청년 프로젝트 10팀 추가 개소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청년 창업자 10팀에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는 관내 빈집·빈 점포를 활용해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장로 4·5가에 청년 창업자 10팀을 추가 선정, 2년 동안 3억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10팀은 지난 3월 약정식을 갖고 사업공간 리모델링 등 창업관련 절차를 완료해 이달부터 첫선을 보였다.

▲11호점 '인터미션 스튜디오 파티룸' 공간대여(파티룸) ▲12호점 '썬유리노리' 폐유리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유리 소품점 ▲13호점 '케이

(k)-피콕컬러' 퍼스널 컬러 교육·컨설팅 ▲14호점 '한결음가게' 자원순환 체험 공간 운영·교육 ▲15호점 '오터슈' 광주의 이야기를 담은 디자인 비누 개발·판매 ▲16호점 '풍선마마스터리(유)' 풍선 이벤트 개발·판매 ▲17호점 '이것은 서점이 아니다' 독립서점·문화예술장작소 ▲18호점 '디아나' 웅기 아로마 스톤 개발·판매 ▲19호점 '지엔스튜디오' 3D프린터를 활용한 피규어 공방 ▲20호점 '충장로전통주제1보급소' 전통주 복합 문화공간 등 10개소이다.

동구는 올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 창업자 10팀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홍보 마케팅, 금융지원 등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